

“죽음 초월한 생사일여 경지”



일면불 월면불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이 화두는 선어록의 백미라고 하는 <벽암록> 3책에 있는 화두입니다. 덩달의 유명한 선승으로서 조사선의 대표자였던 마조 화상(馬祖, 709-788)이 어느 날 병환으로

입니다. 달의 수명은 <불명경>에도 기록돼 있듯이 ‘일일(一日) 일야(一夜)입니다. ‘일일 일야’란 ‘하루 중에 밤’이라는 뜻으로 수명이 하루 밤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달은 저녁에 떠서 아침이면 없어지는데 어떤 작명가가 부처님 이름을 지었는지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를 상징하는 일면불의 수명은 1800세라고 합니다. 1800이라는 숫자에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해는 십장생 중에 하나이므로 해처럼 오래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혹 옛 문헌에 ‘해의 수명은 1800년’이라는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1800세만 해도 인간의 수명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 할만큼 장수입니다.

마조 화상이 병이 깊어 침상에 눕게 되자 선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원주스님이 병환인을 갔습니다.

깨달았으므로 당장 죽어도 미련 없다는 마조 화상 뜻 담겨 ‘하루 사는 월면불, 1800년 사는 일면불’ 화두로 생사 타파

몸져누워 있었습니디. 자세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병이 꽤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 때 선원의 원주가 문병 차 조실 방문 들어 가서 누워 있는 마조 화상께 여쭙었습니다.

“화상께서는 요즘 존후가 어떠하십니까?”

걱정을 동반한 상대적인 물음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속히 쾌차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었을 겁니다.

마조 화상은 누운 채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 아니라.”

마조 화상과 원주와의 대화가 이 말로서 다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몇 마디가 더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뒷이야기를 끌어들이면 공안으로서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이름에 대하여 설명한 <불명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제7권에는 “월면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일일(一日) 일야(一夜)’이고, 일면이라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1800세”라고 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무한대인데 이와 같이 어떤 부처님이 수명은 몇 세까지 살고, 어떤 부처님은 몇 세까지라고 기록한 경전은 처음 봅니다. 월면불처럼 ‘일일일야’ 즉 하루 저녁만 살다가 열반하시는 부처님도 있으니 참 재미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아마 월면불은 부처님 중에도 가장 수명이 짧은 부처님일 것입니다. 장수하는 부처가 된다는 것도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부처님 이름 풀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됐는데 아직도 좀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이름 풀이를 통해 일면불과 월면불의 의미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월면불(月面佛)을 우리말로 옮기면 ‘달 부처님’

“스님, 요즘 건강이 좀 어떠하십니까? 처도가 좀 있으십니까?”하고 여쭙자 마조 화상은 엉뚱하게도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일면불 월면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조 화상이 문안 인사하고 있는 원주에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한 것은 병이 꽤자해 일면불처럼 1800년을 살아도 좋고, 또 밤새 병이 악화돼 월면불처럼 아침에 죽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살만치 살았으므로 비록 내일 죽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뜻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선승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깨달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지금 당장 죽든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탈한 생사일여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선승이 아닙니다. 수행이 될 때도 한참 덜 된 것입니다. 선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깨달음 문제 이전에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때가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 생성 소멸한다면 죽음이란 그저 현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육신은 언젠가는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고, 그 재는 흩어 되고 강물에 섞이고, 바람에 날려 없어질 것인데 말입니다.

선승은 내생에 깨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다음 생으로 미룰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생이 아닌 금생에 깨달아서 삶과 죽음이 되풀이 되는 생사윤회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깨달음의 문제를 내생으로 미룬다면 그것은 선승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윤창화 민족사대표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현실에서 참된 무위행 닦는 바 없이 닦아야”

47 암자를 태운 할머니 <골>

옛날 중국에 한 노 보살이 암자에서 참선하는 스님을 20년 동안 시봉하고 있었다. 지극한 정성으로 한결같이 그 스님을 시봉하다 보니 노보살이 먼저 공부의 안목이 열려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노 보살은 정진중인 스님의 공부 단계를 점검하고자 어여쁜 딸에게 공양을 가지고 가게 하면서 말했다.

“스님을 껴안고는 ‘이럴 때는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 대답을 나에게 전해다오.”

딸은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했다.

공양을 마친 후 그릇을 거두고는 딸이 가만히 스님을 껴안았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시킨대로 물었다.

“이럴 때는 어떠십니까?”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댄으니(枯木倚寒巖), 삼동에도 따사로운 느낌이 없도다(三冬無暖氣).”

애육을 끊어버린 자기에게는 세삼스레 성적 반응이 일어날 여지조차 없다는 확신에 찬 대답이다.

딸은 돌아와서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러자 노 보살은 “내가 20년동안 시봉했는데 스님의 공부경지가 겨우 이 정도란 말인가” 하고는 벌떡 일어나 그 스님을 내쫓고 암자애다가 불을 질러버렸다.

이때 스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노파의 20년 봉양을 헛되이 하지 않고 좃겨나지도 않을 것인가? 이것이 <선문염송>과 <오동회원> 공안집에 나오는 유명한 ‘파자소암(婆子燒庵)’ 화두다.

이 공안에 등장하는 할머니처럼 참공부인에게는 선지식 아닌 분이 없다. 여기에 무슨 승속과 남녀, 노소가 있을 것인가. 그저 치열한 선지(禪智)만이 번득이고 있을 뿐이다. 암두 선사와 덕산 선사가 크게 깨닫기 전에 재가 보살과의 선문답을 통해 한 방향이 맞았고, 조주 선사와 황벽 선사가 할머니들과의 법거랑에서 선사들의 체면을 겨우 세워줬을 정도로 선어록에 등장하는 도인 할머니들의 지혜작용은 만만치 않다. 오늘도 이런 재가(在家的) 선지식들이 불법을 외호하면서 혹 나태한 수행자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적(定)’만으로는 안 되고 ‘성성(惺惺), 또렷또렷이 깨어있음, 慧) 공부가 나타나 되어 통교 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육조 단경>에서 “정(定)과 혜(慧)가 하나가 됐더라도 그것은 도가 아니다.·혜와 정이 하나가 돼서 통류(通流)해야 된다”는 법문이 이것이다.

한편,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이 공안과 관련, “노 보살님이 암자를 불사른 것이 상(賞)입니까? 벌(罰)입니까? 상이라고 한다면 그 스님네를 버리는 것이고, 벌이라고 하면 노 보살님을 끌어내는 것입니다”라며 일음일어로 공안을 헤아리는 것을 경계한 바 있다.

밀암람길(密菴威儀) 선사의 다음 비평도 맥락을 같이 한다.

“목에 쓴 칼을 두드려 부수고 발을 묶은 쇠사슬을 깨뜨림은 두 사람(노파와 스님)에게 다 없지 않지마는 불법을 말할진대 꿈에도 보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평론함은 그 뜻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했다. ‘한 묶음의 버들가지들 거두지 못하니(一把柳條收不得) 불바람이 육단 위에 걸쳐 놓는다(和風塔在玉欄杆).’”

애육과의 대결은 수행자라면 출·재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관문이다. 하지만 ‘애육에 매이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중도(中道)의 입장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러서는 안된다. 애육이니 중도니 깨달음이니 하는 말도 있고 구체적 현실에 부딪혀서 무애자재할 수 있는 참된 무위행(無爲行)을 닦는 바 없이 닦는 수밖에 없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강릉 담마선원은 2009년 1월10~16일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에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우 포다나 사야도가 면담을 통한 수행 점검, 법문, 좌선, 행선 등을 지도한다. 참가비는 15만원, 선착순 15명 접수가능하다. (033)644-1686

●재가불자 위한 겨울 학림=남원 실상사는 2009년 1월 5~10일(1차), 12~17일(2차) ‘재가불자를 위한 겨울 학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차 겨울학림에서는 재연 스님, 도용 스님이 초기법교를 강의하고 2차 겨울학림에서는 해강 스님, 원목 스님이 화엄사상을 강의한다. 참가비는 15만원으로 선착순 20명 접수. (036)636-3031

●겨울수련회 산사체험=함천 해인사는 2009년 1월 16~18일, 21~23일, 1월 30일 ~2월 1일 초등부·중고등부·성인부 각 80명을 대상으로 겨울수련회 산사체험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초등부 5만원, 중·고등부 8만원, 성인 10만원이고 수련복은 지급되므로 기본적인 세면도구와 방한복만 준비하면 된다. (055)934-311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신는 본게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neter.com.kr
E-mail: heegyun@avata21.com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괘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괘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괘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특괘불(大·中·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품 단청, 탱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리아기획 상담전화: (02)714-7253 / 010-9939-5412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